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피갑(皮甲)의 특징에 관한 고찰

Main Features of Leather  
Armor from the Joseon  
Dynasty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황진영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Hwang Jinyoung

Department of Conservation Science, National  
Museum of Korea

Tel: 82-2-2077-9443  
E-mail: sugar09@korea.kr

## 요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피갑 유물의 전시와 안전한 보호를 위한 보존처리를 진행하기  
에 앞서 갑옷의 특징과 종류를 파악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보존처리의 기초자료를  
위해 이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갑옷의 명칭은 색, 재료, 신분, 갑옷의 부위까지 함께 나열하여 세부  
적인 특징의 차이에 따라 기록하였다. 명칭을 표기하는 순서는 대부분 색상과 직물,  
다음으로 철이나 가죽 등의 재료가 나열되며, 앞부분은 의(衣), 뒷부분은 갑찰의 재  
료, 또는 신분만으로 명칭을 기록하였다. 둘째, 갑옷에 사용된 재료는 직물, 가죽, 금  
속이며, 철갑(鐵甲), 피갑(皮甲), 지갑(紙甲), 엄심갑(淹心甲), 단갑(緞甲)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셋째, 갑옷의 구조와 착용방법에 따라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며 국  
립중앙박물관 소장 피갑 4점은 그 중 임진왜란 이후부터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입혀진 보편적 양식인 포형(袍型) 갑옷 양식에 포함되며 보군(步軍)이 착용하였던  
갑옷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갑옷, 갑주(甲冑), 피갑(皮甲), 군사복식, 조선 후기

## Abstrac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conducted conservation treatment on the armor  
in its collection for the purposes of public display and appropriate preservation.  
This was preceded by a literature study on the types and features of the armor in  
order to collect basic data for secure and accurate conservation treatment.

The literature study found that during the Joseon dynasty, armor was named in  
reflection of precise details including the color, material, status of the wearer, and  
even the certain parts of a suit of armor. In general, the name of armor includes  
the details in the order of color, underlying textile, and scale material (e.g., iron,  
leather). The former part of the name presents the features of the garment and  
the latter part refers to the material of the scales or the status of the wearer. The  
study also found that main materials used in armor include textiles, leather, and  
metal, and armor can be classified by the materials of the scales—e.g., metal  
armor (鐵甲), leather armor (皮甲), paper armor (紙甲), paper-and-fabric armor (淹  
心甲), silk armor (緞甲). Joseon-period armor can also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its structure and the method of wearing, and overcoat(袍)-style  
armor was the most widely used in the period following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1592–1598) through the late nineteenth~early twentieth century.  
Overcoat-style armor was commonly worn by infantry, and the four examples  
of armor with leather scales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belong to this  
category.

**Keywords :** Armor, Armor and helmet(甲冑), Leather Armor(皮甲), Military  
attire, Late Joseon dynasty

투고일: 2018.10.1. 심사(수정)일: 2018.11.19. 게재확정일: 2018.11.21.

## I. 서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피갑 유물의 전시와 안전한 보호를 위한 보존처리를 진행하기에 앞서 갑옷의 특징과 종류를 파악하여 정확한 보존처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위해 이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갑옷에 대한 조선시대 문헌 기록들과 선행연구 자료를 통해 갑옷의 재료와 형태, 유형들을 먼저 고찰해보고 실제 보존처리를 진행하는 유물들과 형태를 비교하여 문헌과 유물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갑옷의 구조와 문헌적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고 안전한 보존처리와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리라 여겨진다.

연구범위는 연구자가 보존처리에 참여하는 갑옷 총 4점의 유물을 대상으로 하며, 조선시대 투구를 제외한 의(衣)부분만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 소장유물의 기본적인 특징만을 확인하고 주로 문헌과 선행연구의 이론적 연구만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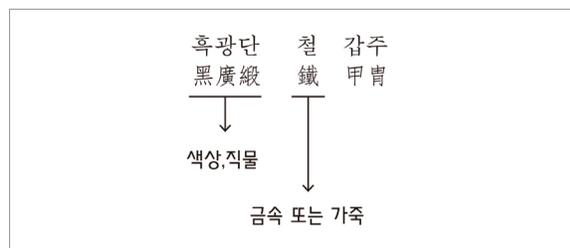
## II. 조선시대 갑옷의 특징과 유형

### 1. 갑옷의 명칭

일반적으로 갑옷이란 의미는 전쟁에서 적의 공격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였던 방어무기로 갑옷, 갑주라는 명칭으로 흔히 불려지고 있다. 정확하게 분류하면 몸을 보호하는 의(衣)부분을 갑옷이라고 하며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포함한 부속구들의 일습을 이룬 것을 갑주(甲冑)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衣)부분만을 다루며 문헌상에 표기된 갑주의 명칭을 제외하고 모두 갑옷이라고 용어를 통일하였다.

조선시대 문헌에 따르면 갑옷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용원필비(戎垣必備, 1813)』에서는 갑(甲), 갑의(甲衣), 의갑(衣甲), 신갑(身甲), 갑신(甲身), 개(鎧), 개갑(鎧甲), 갑개(甲鎧), 개(介), 철의(鐵衣), 갑옷(甲冑), 갑아(甲兒) 등으로 표현되었다<sup>1)</sup>. 또한 『만기요람(萬機要覽, 1808)』과 『무위영각색군기완과구별성책(武衛營各色軍器完破區別成冊, 1882)』에는 철갑주(鐵甲冑), 피갑주(皮甲冑), 무명갑주[木綿甲冑], 무명갑의[木綿甲衣], 흑광단철갑주(黑廣緞鐵甲冑), 각색무명피갑주[各色木綿皮甲冑], 다홍성성전

도금동엽갑주(多紅猩猩氈塗金銅葉甲冑), 방색보군피갑의(方色步軍皮甲衣), 흑색용문단갑주(黑色龍紋緞甲冑)와 같이 색, 재료, 신분, 갑옷의 부위까지 함께 나열하여 세부적인 특징의 차이에 따라 용어를 사용하였다. 대부분은 색상과 직물, 뒤에는 금속이나 가죽 등의 재료가 나열되며 앞부분은 의(衣), 뒷부분은 갑찰의 재료, 또는 신분만으로 기록하였다(도1, [1]). 이러한 문헌상의 재료와 명칭, 그리고 형태 등은 갑옷의 특징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며, 현재 전해지는 유물들에서 비교, 확인할 수 있다.



도1. 갑옷의 명칭 표기

## 2. 갑옷의 종류

조선시대의 갑옷은 형태와 재료를 기록해 놓은 문헌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어 갑옷의 시기별 명칭과 특징을 확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2]. 먼저 재료에 따라 크게 나누면 철갑(鐵甲), 피갑(皮甲), 지갑(紙甲), 엄심갑(淹心甲), 단갑(緞甲), 전갑(氈甲), 삼승갑(三升甲), 면갑[木綿甲], 두정갑(頭釘甲), 두두미갑(頭頭味甲), 두석린갑(豆錫鱗甲) 등이 있다.

철갑(鐵甲)은 금속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 조선 초기의 철갑은 금속조각인 철찰(鐵札)을 가죽끈으로 연결하여 만든다. 갑찰에 수은을 바른 수은갑(水銀甲)과 그을린 사슴 가죽으로 엮은 후 검은 칠을 한 유연갑(柳葉甲)이 있다. 그 외에도 작은 무쇠 미늘로 만든 엽아갑(葉兒甲), 금위영에 지급됐던 별철갑(別鐵甲), 얇은 쇠를 작은 고리[小環]로 만들어 서로 엮어 만든 것은 쇠자갑(鎖子甲), 쇠미늘[鐵札]과 쇠고리[鐵環]를 서로 엮은 것은 경번갑(鏡幡甲)이라 하고 있다(도2). 철갑은 가장 방호력이 뛰어난 갑옷이지만 철찰을 연결하는 가죽끈이 쉽게 끊어져 다시 수리 해야 하며, 녹이 슬고, 무거워 철갑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a      b      c

- (a) 『춘관통고(春官通考)』 수은갑
- (b) 『세종실록 오례(世宗實錄 五禮)』 쇠자갑
- (c) 『세종실록 오례(世宗實錄 五禮)』 경번갑



도2. 조선시대 철갑의 형태

피갑(皮甲)은 사슴[鹿], 노루[獐], 돼지[猪], 소[牛], 말[馬] 등의 다양한 가죽을 사용하여 만든 것이다. 착용하기에 무겁고 운반도 불편한 금속보다 가벼운 가죽으로 빠르게 대체되었다. 조선초기의 피갑은 재료만 다를 뿐 수은갑, 엽아갑과 같은 철갑과 같은 형태로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갑옷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E3 a)</sup>. 조선중기에는 단(緞)으로 의(衣)를 만들고 피찰(皮札)을 금속 두정(頭釘)으로 의에 고정시켰다. 또한 갑신(甲身)과 갑군(甲裙)이 분리되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시기의 유물은 국립대구박물관 소장 여반(呂攀, 1699-1773)장군의 갑옷이 남아 있다<sup>(E3 b)</sup>. 조선후기의 피갑은 현재 남아있는 갑옷유물들과 가장 많이 일치하는 시기로 다양한 직물로 의를 만들고 안쪽에 피찰을 금속 두정으로 고정시켰다. 형태는 좌우 대칭[合衽]이며, 소매 배래와 옆선 모두 트여놓고 작은 금속 또는 매듭단추로 고정하도록 하였다. 양쪽 어깨에는 금속 견철을 달아 주었다<sup>(E3 c)</sup>.

a      b      c

- (a)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갑옷<sup>[3]</sup>  
문중소장
- (b) 여반(呂攀, 1699-1773)의 갑옷<sup>[3]</sup>  
국립대구박물관 소장
- (c) 목면두정피갑옷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3. 조선시대 시기별 피갑의 형태

그 외에 종이를 여러 겹 겹쳐 만든 지갑(紙甲)과 비단이나 모직물로 만든 단갑(緞甲), 전갑(氈甲), 무명으로 만든 삼승갑(三升甲), 면갑(木綿甲) 등의 다양한 종류

의 갑옷을 확인 할 수 있다. 갑옷의 종류와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갑옷의 종류와 특징

| 종류                   | 재료                                                       | 특징                                                                              |
|----------------------|----------------------------------------------------------|---------------------------------------------------------------------------------|
| 철갑(鐵甲)               | 금속                                                       | - 견고하고, 방호능력 뛰어남<br>- 무겁고 차가워 추위에 힘들                                            |
| 피갑(皮甲)               | 가죽: 사슴, 노루, 돼지, 소, 말                                     | - 철갑에 비해 가볍고, 따뜻함, 제작이 용이함<br>- 철갑에 비해 방호능력 떨어짐                                 |
| 지갑(紙甲) ·<br>엄심갑(淹心甲) | 종이와 직물                                                   | - 가볍고, 따뜻함, 제작이 용이함, 색을 내기 쉬움<br>- 방호능력 거의 없음<br>- 피갑을 마련하기 어려운 변방군사들의 훈련용으로 착용 |
| 단갑(緞甲) ·<br>전갑(氈甲)   | 비단, 모직물                                                  | - 초관(哨官, 종9품 무관직)이상의 장관(將官)계급이 착용<br>- 붉은색이 가장 화려한 갑옷으로 인식                      |
| 기타 갑옷의<br>종류         | 삼승갑(三升甲), 면갑[木綿甲], 두정갑(頭釘甲), 두두미갑(頭頭味甲), 두석린갑(豆錫麟甲) 등... |                                                                                 |

위의 내용처럼 재료에 따라 분류된 갑옷은 종류에 따라 착용자도 구분되어 있다.

『만기요람』에서는

“마병과 보군에게 갑주를 인당 각 1개씩 지급한다.”

“갑주 3,830벌 중 철갑이 839벌인데 그 가운데서 744벌은 별무사(68명)와 마병(833명)에게 나누어 주며, 피갑이 2,892벌인 데 보군(포수 2,440명과 살수 738명)에게 나누어 준다. 각색 비단 갑주는 99벌이다.”

『무위영각색군기완과구별성책』에서는

“방색보군피갑의(方色步軍皮甲衣), 794件, 방색보군피갑주(方色步軍皮甲胄) 792件.”

『군기색중기(軍器色重記, 1875)』에서는

“방색보군피갑주(方色步軍皮甲胄) 200件.”

즉, 철갑은 말을 타는 마군(馬軍)이 착용하고, 피갑은 보군(步軍)이 착용한다. 일반병사의 갑주는 병종에 따라 그 구조와 재료가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 4]</sup>.

### 3. 갑옷의 재료

문헌에 나타난 갑옷의 재료는 위에서 언급한 『조선왕조실록』, 『응원필비』, 『만기요람』, 『무위영각색군기완과구별성책』의 재료, 색상, 신분이 포함된 명칭과 『성호사설(星湖僊說)』, 『어영청구식례(御營廳舊式例)』에서 장인(匠人)이 제작한 갑옷의 종류와 제작에 필요한 인원들을 통해서 갑옷에 필요한 재료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갑옷에 사용된 재료는 직물, 가죽, 금속이며, 가장 다양한 재료가 기록된 것은 직물이다. 크게 비단[緞], 무명[木綿], 모[氈], 삼베[布]로 나눌 수 있지만 비단은 색상과 문양에 따라 광단(廣緞), 장단(壯緞), 운문단(雲紋緞), 대단(大緞), 모단(冒緞), 화단(禾緞), 장단(漳緞), 우단(羽緞)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sup>[1]</sup>. 『영조실록』 18년(1742)에 사졸은 쇠갑옷을 입고, 장수는 비단갑옷을 입고 있음을 비판하며 장식갑옷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대개 장식갑옷이란 무늬있는 비단이라 하였다<sup>[4]</sup>. 무명으로 만든 갑옷은 피갑과 하급병졸의 무명갑옷[木綿甲]이 사용되었으며, 피갑에 사용되는 무명은 갑찰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3겹으로 의(衣)부분을 만들어 준다. 면직물은 염색한 면과 화문(花紋), 문자문(文字紋), 만자(卍字紋) 등의 인문(印文)을 찍어 무늬를 표현하였다<sup>(도4 a)</sup>. 무명갑[木綿甲]은 면갑(綿甲)이라고도 하며, 하급군졸의 갑옷으로 무명을 30겹을 겹쳐서 만들고 길이가 짧고 소매가 없는 등거리 형으로 한쪽 어깨와 양옆이 트여있어 매듭단추와 끈으로 묶어 입는 갑옷이다<sup>(도4 b)</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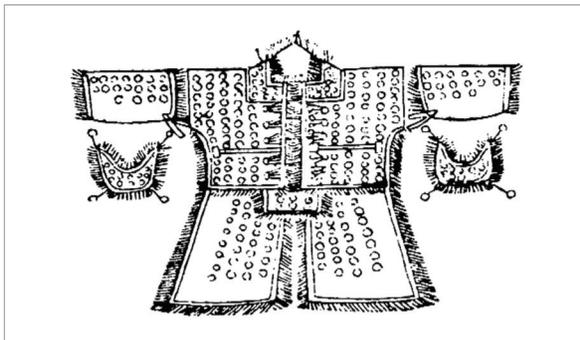
- a      b
- (a) 피갑의 인문(印文)<sup>[3]</sup>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
- (b) 면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4. 무명으로 제작한 갑옷

가죽은 수은갑, 유엽갑 등 철갑에서는 철찰을 서로 엮을 때 필요했으며, 이때 철찰을 연결하는 가죽끈의 질긴 정도는 갑옷의 수명을 크게 좌우하였다<sup>61</sup>. 『세종실록 오례』에서 철찰을 그을린 사슴가죽[烟鹿皮]으로 엮어 만들거나 피갑은 돼지가죽[生猪皮]으로 미늘을 만들고, 그을린 사슴가죽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었다<sup>62</sup>. 『세종실록』 26년(1444) 갑찰을 연결하는 피혁을 비축해두어야 하며, 그중 관갑피혁(貫甲皮革)은 희귀하니 왜인(倭人)과 무역하여 저축하게 하였다. 여기서 관갑피혁이란 가죽으로 만든 갑옷으로 피갑을 만드는 가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sup>63</sup>. 그리고 피갑은 사슴[鹿], 노루[獐], 돼지[猪], 소[牛], 말[馬] 등의 가죽을 사용하였으며, 『세종실록』 32년(1450) 왜인(倭人)이 돼지가죽으로 갑옷을 만들었는데 견고하고 치밀하며 사용하기 가볍고 얻기가 쉬우니 모방하여 제작하자는 의견<sup>64</sup>이 나타나면서 돼지가죽으로 만드는 것이 규정되었으나<sup>65</sup> 이후에 기록들은 돼지가죽보다는 사슴가죽이 사용되었다<sup>66</sup>.

금속은 위의 가죽 재료보다는 다양하게 기록되어있지는 않았다. 『어영청구식례』의 도금갑주(鍍金甲冑)의 제작 기록을 살펴보면, 동철(銅鐵)과 함석(含錫)을 섞어 만든 늦쇠인 두석(豆錫)을 만들고 도금한 3가지 크기의 못[釘]으로 고정한다. 견철은 두석(豆錫)으로 만들고 36개의 은(銀)단추를 달아 제작하였다<sup>67, 68</sup>. 소매를 보호하는 비수(臂袖)에서는 순은(純銀)으로 은입사장식을 하고, 금(金)과 수은(水銀)으로 못[釘]을 도금하는데 사용하였다.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의 황동두정갑과 두석란갑주는 명칭 그대로 황동(黃銅)과 두석(豆錫)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69</sup>.



도5. 황동(黃銅)과 두석(豆錫)을 사용한 갑옷

a b

- (a) 『국조오례의서례』  
황동두정갑  
(b) 두석란갑주<sup>3)</sup>  
고려대학교 소장

또한 철갑(鐵甲)은 중국의 예(例)에 따라 채백(彩帛)으로 장식하고, 지갑(紙甲)은 홍색(紅色)·황색(黃色)·청색(靑色)으로 물들이거나, 적의 눈에 현혹되도록 하고, 군의 당당한 기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색과 장식을 하도록 하는 의견을 통해서 군복에도 장식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10)</sup>.

#### 4. 갑옷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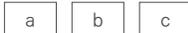
유물의 형태와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갑옷의 구조와 착장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시기에 따른 변천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박가영(2003)<sup>11)</sup>의 4가지 유형의 명칭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 4.1. 유형 I. 호항(護項) 분리형 갑옷

조선초기의 갑옷으로 깃 부분을 둘러 목 전체를 보호해주는 형태로 『세종실록』과 『국조오례의서례』, 『악학궤범』에서 그 형태가 잘 나타나 있다. 철(鐵), 가죽(皮), 종이(紙)등으로 만든 갑찰을 가죽끈으로 엮은 형태로 갑찰이 표면으로 그대로 노출되는 15세기 말 갑옷 구조이다<sup>12)</sup>.



도6. 유형 I. 호항(護項) 분리형 갑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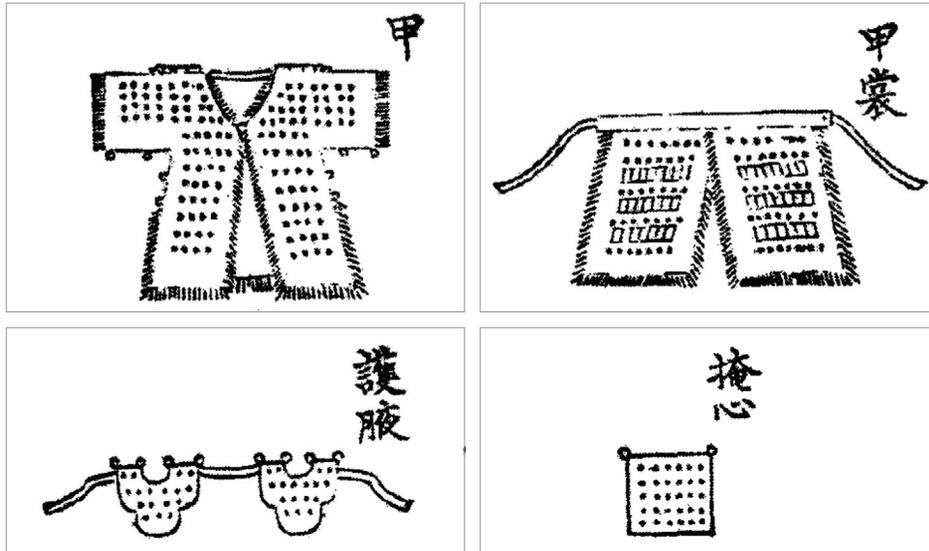
- (a) 『세종실록』 갑(甲)
- (b) 『국조오례의서례』 수은갑
- (c) 『악학궤범』 황화갑

##### 4.2. 유형 II. 소매분리형 갑옷

15세기 말 『국조오례의서례』의 황동두정갑은 의(衣) 안쪽에 갑찰을 두정으로 고정된 형태로 갑신(甲身), 갑군(甲裙), 호액(護腋), 골미(鵝尾)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sup>13)</sup>.

### 4.3. 유형Ⅲ. 의상형(衣裳型) 갑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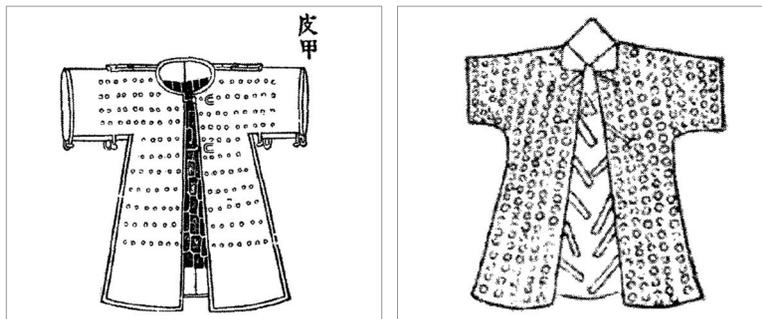
의(衣) 안쪽에 갑찰을 두정으로 고정한 형태로 갑신(甲身), 갑군(甲裙), 호액(護腋), 엄심(奄心)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의(衣)와 상(裳)이 분리되는 형태의 갑옷이다(도7).



도7. 유형Ⅲ. 의상형(衣裳型) 갑옷, 『무예도보통지』 마예관복도설(武藝圖譜通志, 1790)

### 4.4. 유형Ⅳ. 포형(袍型) 갑옷

임진왜란 이후부터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입혀진 보편적 양식으로 의(衣) 안쪽에 갑찰을 두정으로 고정한 형태로 의(衣)와 상(裳)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된 포(袍)의 형태이다. 남아있는 갑옷 유물이 대부분 IV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갑옷의 특징을 제대로 살펴볼 수가 있다(도8).



도8. 유형Ⅳ. 포형(袍型) 갑옷



- (a) 『응원필비』  
피갑(皮甲)
- (b) 『국조오례서례』  
두정갑(頭釘甲)

### Ⅲ.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피갑의 특징

#### 1. 피갑의 형태 및 구조

앞의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피갑 유물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유물은 연구자가 보존처리에 참여하는 갑옷으로 등록번호 본관53 목면두정피갑옷 2점, 본관53 단두정피갑옷 1점, 기증 3570 갑옷 1점으로 총 4점이다. 이 중 본관53 목면두정피갑옷은 명칭이 동일하여 혼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논고에서는 목면두정피갑옷(1), 목면두정피갑옷(2)로 연구자가 임의로 번호를 부여하여 분류하였다. 4점의 형태는 모두 의(衣)와 상(裳)이 분리되지 않은 형태로 조선후기 유형인 유형Ⅳ 포형(袍型) 갑옷과 일치하며, 피갑의 착용자는 보군(步軍)들의 갑옷임을 확인하였다(표2).

표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피갑

| 등록번호  | 유물명칭               | 앞면                                                                                  | 뒷면                                                                                   | 펼친면                                                                                   |
|-------|--------------------|-------------------------------------------------------------------------------------|--------------------------------------------------------------------------------------|---------------------------------------------------------------------------------------|
| 본관53  | 목면두정<br>피갑옷<br>(1) |   |   |   |
|       | 목면두정<br>피갑옷<br>(2) |  |  |  |
|       | 단두정<br>피갑옷         |  |  |  |
| 증3570 | 갑옷                 |  |  | -                                                                                     |

4점의 유물의 기본적인 구성은 좌우 대칭[合襴]이며, 목선은 1.2~1.5cm두께의 부드러운 가죽으로 덧대어 주었다. 소매 배래와 옆선 모두 막힘없이 트여있다. 트임에

는 작은 금속과 매듭단추들을 사용하여 고정할 수 있도록 달아 주었다. 안쪽에는 방어를 위한 피찰을 미늘로 연결하였으며, 고정은 금속 못으로 하여 겉면에서 보면 일정한 간격의 두정이 장식처럼 보여지도록 제작하였다. 양쪽 어깨에는 금속 건철이 어깨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3등분으로 분절하여 달아 주었다. 그 중 갑옷(기증3570)은 겨드랑이 아래 무가 있는 형태로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피갑과 최근 발표된 독일 상트오틸리엔수도원 피갑(18세기 추정, 국외문화재재단에 기증)의 형태와 유사하다<sup>(도9)</sup>. 무의 형태로 18세기 이전으로 추정한다면, 4점의 유물 중 가장 이른 시기의 피갑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도9. 무가 달린 피갑

- |   |   |   |
|---|---|---|
| a | b | c |
|---|---|---|
- (a) 갑옷(기증3570)  
 (b) 피갑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  
 (c) 피갑  
 독일 상트오틸리엔수도원  
 기증

## 2. 피갑의 재료

### 2.1. 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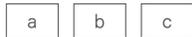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피갑 유물 4점 중 단두정피갑옷(본관53)을 제외한 3점은 황색의 무명을 겉감으로 사용하였다. 황색 무명 위에는 흑색으로 인문(印文)이 찍혀 있으며, 목면두정피갑옷[본관53(1)]과 목면두정피갑옷[본관53(2)]에는 오방을 의미하는 듯 앞, 뒤로 문자, 석류 등 14개의 인문(印文)이 찍혀있으며, 이러한 인문은 포형의 피갑유물 뿐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외 면갑에서도 나타나 있다<sup>(도10)</sup>. 그리고 갑옷(기증3570)은 앞의 2점과 다르게 전체에 연화문이 찍혀있다. 옷 전체에 직조된 것처럼 시문 된 갑옷은 연화문, 보상화문, 문자문, 만자문 등의 무늬를 표현하기도 한다<sup>(도11)</sup>. 이처럼 갑옷의 형태가 달라도 인문의 비슷한 위치와 무늬가 나타난 것은 문양의 내용과 위치가 정해져 있었고, 그 규칙을 따라 제작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면직물은 직조하여 문양을 표현할 수 없어 인문을 찍어 갑옷을 제작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sup>(11)</sup>.



- (a) 목면두정피갑옷  
[본관53(2)]
- (b) 면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c) 면갑  
미국 스미소니언 박  
물관 소장



도10. 인문이 찍힌 피갑 부분 부분



- (a) 갑옷(기증3570)
- (b) 피갑 인문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
- (c) 피갑 인문 도식화  
국립기메중앙박물관  
소장



도11. 걸감 전체에 인문이 찍힌 피갑 부분

단두정피갑옷(본관53)의 걸감은 홍색, 황색 등 여러 색으로 제직된 단직물로 현재 대부분 소실되어 일부만 남아있다. 『무위영각색군기완과구별성책』에서 장관장단갑주(將官壯緞甲冑), 방색보군피갑의(方色步軍皮甲衣)라고 기록되어있다. 이는 장단(壯緞)의 직물을 사용한 갑옷은 장관(將官)의 신분이 착용한다는 것으로 앞의 목면두정피갑옷의 신분보다 높은 계급이 착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도12).



- (a) 뒷면 부분
- (b) 소매 부분



도12. 단두정피갑옷(본관53)

## 2.2. 안감

4점의 유물 모두 겉감보다는 성근 무명을 청색으로 염색하여 사용하였으며, 금속과 피찰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겉감과 안감사이 무명심지를 2겹을 넣어 제작하였다. 특히 단두정피갑옷(본관53)의 겉감의 손상으로 안감인 청색무명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 2.3. 피찰과 두정

피찰은 가죽 3겹 위에 옷칠을 하여 견고하고 치밀하여 방호력이 뛰어나도록 제작하였다. 피찰의 크기는 중심 몸판에는 평균 9.5×6.5cm의 직사각형으로, 소매 부분에는 평균 3.5×8cm의 폭이 좁은 형태로 소매의 움직임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작하였다. 피찰의 연결은 피찰 1조각에 2개의 두정을 사용하여 직물과 확실하게 고정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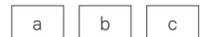
## 2.4. 목서

착용자로 추정되는 목서가 2점의 피갑에서 확인이 되었다. 목면두정피갑옷[본관53(2)]의 소매안쪽에는 黃殷哲(황은철)<sup>(도13 a)</sup>이, 갑옷(기증3570)에서는 소매 안쪽과 뒷길 위쪽 피찰 한 조각에 김치형(金致衡), 박종후(朴宗後), 권명현(權命賢)<sup>(도13 b, c)</sup>의 3명의 이름이 쓰여있다. 이는 착용자의 이름을 갑옷 안에 적도록 규정되어있었으며, 군기를 진상할 때 바뀌지 않게 구별하도록 도장이나 생산지 또는 소유주를 표시하는 것이 상례였다고 하였다<sup>(11)</sup>.



도13. 목서가 있는 피갑 부분

그 외에 처리 전 조사한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목면두정피갑옷[본관53(1)] 피찰을 고정하는 두정은 주석과 황동, 어깨 위의 견철은 철 위에 은상감 그리고 황동으로 제작되었다. 총 무게는 9~10kg정도이며, 처리 전 크기는 가로 98~105cm, 세로 94~118cm이다. 자세한 내용은 표3에 정리하였다.



- (a) 목면두정피갑옷  
[본관53(2)]
- (b) 갑옷(기증3570) 소매 부분
- (c) 갑옷(기증3570) 피찰 부분

표 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피갑의 처리전 조사

| 등록번호  | 유물명칭       | 크기(가로×세로, cm) | 무게(kg) | 재료                                                    |
|-------|------------|---------------|--------|-------------------------------------------------------|
| 본관53  | 목면두정피갑옷(1) | 104×94        | 9.9    | - 겹감·안감: 무명<br>- 피찰: 가죽에 흑칠<br>- 두정: 주석 / 견철: 철위에 은상감 |
|       | 목면두정피갑옷(2) | 98×114        | 8.8    | - 겹감·안감: 무명<br>- 피찰: 가죽에 흑칠<br>- 두정·견철: 황동            |
|       | 단두정피갑옷     | 105×118       | -      | - 겹감: 비단 / 안감: 무명<br>- 피찰: 가죽에 흑칠<br>- 두정·견철: -       |
| 증3570 | 갑옷         | 96.8×105.5    | -      | - 겹감·안감: 무명<br>- 피찰: 가죽에 흑칠<br>- 두정·견철: -             |

#### IV. 결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피갑 유물의 전시와 안전한 보호를 위한 보존처리를 실시하기 위해 갑옷의 이론적인 특징과 종류를 파악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보존처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위해 연구를 시작하였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문헌에 따르면 갑옷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으며, 색, 재료, 신분, 갑주의 부위까지 함께 나열하여 세부적인 특징의 차이에 따라 명명하였다. 대부분 색상, 직물, 다음 철, 가죽 등의 재료가 나열되며 앞부분은 의(衣), 뒷부분은 갑찰의 재료 또는 신분만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재료에 따라 크게 나누면 철갑(鐵甲), 피갑(皮甲), 지갑(紙甲), 엄심갑(淹心甲), 단갑(緞甲), 전갑(氈甲), 삼승갑(三升甲), 면갑[木綿甲], 두정갑(頭釘甲), 두두미갑(頭頭味甲), 두석린갑(豆錫鱗甲) 등이 있다.

셋째, 갑옷의 종류에 따라 착용자도 구분되어 있다. 철갑은 말을 타는 마군(馬軍)이 착용하고 피갑은 보군(步軍)이 착용한다. 일반병사의 갑주는 병종에 따라 구조와 재료가 달랐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넷째, 갑옷에 사용된 재료는 직물, 가죽, 금속이며 가장 다양한 재료가 기록된 것은 직물이다. 크게 비단[緞], 무명[木綿], 모[氈], 삼베[布]이며, 가죽은 사슴[鹿], 노루[獐], 돼지[豬], 소[牛], 말[馬], 금속은 철(鐵), 동철(銅鐵)과 함석(含錫)을 섞어 만든 놋쇠인 두석(豆錫), 은(銀), 황동(黃銅) 등이 사용되었다.

다섯째, 갑옷의 구조와 착장방법에 따라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 I은 조선초기의 갑옷으로 호항(護項) 분리형 갑옷, 유형 II는 갑신(甲身), 갑군(甲裙), 호액(護腋), 골미(鵝尾)의 4부분으로 구성된 소매분리형 갑옷, 유형 III은 의(衣)와 상(裳)이 분리되는 형태인 의상형(衣裳型) 갑옷, 유형 IV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입혀진 보편적 양식인 포형(袍型) 갑옷으로 분류된다.

여섯째,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피갑 4점 모두 유형 IV의 조선후기 포형(袍型) 갑옷의 양식에 해당되며 보군(步軍)이 착용하였던 갑옷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갑옷은 군복이라는 점 때문에 다른 복식유물보다 연대와 착용자가 미상인 경우가 많다. 3~4천벌의 갑옷을 제작하였다는 기록에 비해 현존하는 유물은 소량으로 남아있어 군사복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과 선행연구의 이론적 연구만 다루었지만 보존처리와 분석이 완료된 후 본 연구에서 진행한 문헌연구와 비교하여 기록의 내용과 실제 유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추가연구를 이어나가도록 하고자 한다.

---

## 참고문헌

1. 박가영, *조선시대의 갑주*,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학위논문, p28-168, (2003).
2. 육군박물관편, *군사복식*, 육군박물관, 서울, p202, (2012).
3. 문화재관리국편, *韓國의 甲冑*, 문화재관리국, 서울, (1987).
4. 엄정하·조우현, 조선 중·후기 訓練都監의 군사복식에 관한 연구, *복식* 63(8), p180, (2013).
5. 『英祖實錄』56권, 영조 18년 8월 16일 壬寅. “被堅執銳將, 與士卒同甘苦也。而士卒被鐵甲, 將帥被緞甲, 豈與衆共之之意哉 嗣後復然者, 當行軍律.” 蓋飾樣甲, 以紋緞飾爲甲衣者也.
6. 『世宗實錄』133권, 五禮, 軍禮序例, 兵器, 甲·冑. 用烟鹿皮編成, 黑漆曰柳葉甲..... 用烟鹿皮編成曰皮甲.
7. 『世宗實錄』103권, 세종 26년 1월 10일 庚申. 修補所入皮革, 必須多備. 然我國實甲皮革稀貴, 今倭人多齎皮革而來, 請貿易儲畜.
8. 『世宗實錄』127권, 세종 32년 1월 15일 辛卯. 臣聞倭人以豬皮爲甲, 堅緻輕便, 乞中外皆令倣而爲之, 況豬皮爲易得之物乎.
9. 『御營廳舊式例』, 工役式例. 鍍金皮甲一領所入甲冑并重三十一斤九兩.
10. 『世宗實錄』127권, 세종 32년 1월 15일 辛卯. 鐵甲則依中原例, 以彩帛爲飾, 紙甲則令染紅黃青色, 或用楚人衷甲之意, 外着方色有文之衣, 以至兜牟, 皆令有簷, 而馬韉之飾, 亦勿禁青紅之色, 于以眩耀敵人之目, 于以壯我三軍之氣.
11. 박가영·송미경, 조선 후기 면갑(綿甲) 유물 분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을 중심으로-, *복식* 63(4), p164-165, (2013).